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3년 2호
JUN 30 2023

발간년월 2023년 6월 30일(2023년 2호)

발행인 김종덕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TEL +82-51-797-4790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02

2023 북한의 식량안보와 곡물수급 평가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황해도 재해와 식량난

허정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의 식량 유통 프로세스

:곡물, 야채, 육류, 수산물 공급체인망을 중심으로

정은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동향

25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채수란(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전문연구위원)

北 리뷰

28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이현희(21C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

김혜원((사)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北 소식

34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3년 4월~6월)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3년 4월~6월)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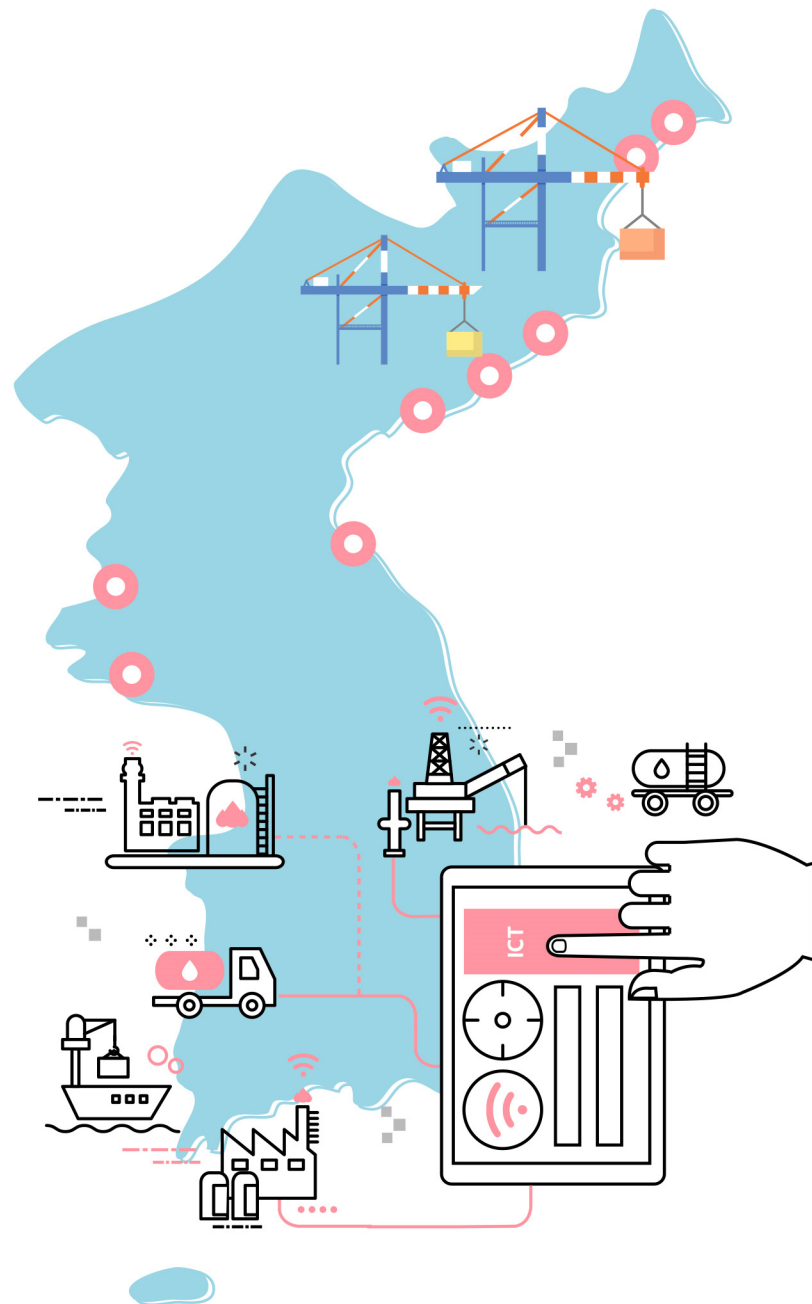
북한 통계

46

수산물 품목별 가격 (2023년 4월~6월)

2022년과 2023년 봄철 북한 수산물 가격 비교

채수란(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전문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채수란 전문연구위원 Tel_051-797-4790, E-mail_9orchid7@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기획 칼럼

2023 북한의 식량안보와 곡물수급 평가¹⁾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990년대 식량위기 이래 만성적 식량 부족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은 202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 식량 생산이 더 감소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북한의 곡물 생산은 종종 480만 톤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2016년을 정점으로 그 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²⁾ 생산은 감소한 반면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농촌진흥청 생산량 추산치를 기준으로 하면 2019~2021년 기간 연평균 138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북한 식량 부족의 근본 원인은 경제와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최근 식량 부족은 2010년대 중후반의 경제제재 강화와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가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은 2022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21년의 식량 생산량이 469만 톤으로 예년에 비해 회복되었지만 2022년의 수급 불균형을 메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식량 수입도 제한되어 식량 부족 현상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2022년 봄철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북한 국내로 확산되어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편 이례적인 봄가뭄으로 맥류와 봄감자 생산이 감소해 식량 공급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 봉쇄·격폐 시기에 식량의 배급과 시장 유통에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우려했던 현상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았다. 봄작물 작황에 피해가 일부 발생했지만 맥류 식부면적이 늘어나 작황 피해를 상쇄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의 국내 유행이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진정돼 긴급 통제와 격폐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었다.

기획 칼럼

2022년 가을, 다시 식량 생산 감소

2022년에는 농업기상 조건이 유리하지 않았다. 작물 생육기간(5~9월)의 기상이 전반적으로 불리했다. 예년에 비해 기온은 낮았고 강수량은 많았으며 일사량은 낮았다.⁴⁾ 봄철 이앙 준비기와 작물 생육 초기(4~5월)에도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었고, 이 시기 수확을 앞둔 봄작물 작황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비료 수입이 감소해 비료의 공급도 크게 줄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 총 68만 2,000톤의 화학비료를 조달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9.7% 감소한 것이며 연간 소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에 불과하다.⁵⁾ 비단 2022년뿐 아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북한 농업은 늘 화학비료 부족에 시달려 왔다. 그만큼 북한은 비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더 공급하기 위해 북한 특유의 전통적 대응을 꾸준히 경주해 왔다.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공급 증대는 농촌 현장을 넘어 전국민이 참여해야 할 운동으로 독려하고 있다. 국내에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인 석탄을 활용해 비료 원료를 얻는 석탄가스화 공정 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부족한 화학비료를 식량작물 생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도 한다. 2022년 들어 화학비료 공급 감소에 직면한 북한은 당연히 이들 전통적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표>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구 분	단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계
2022년 재배면적	천ha	502	748	351	104	156	28	1,889
2022년 생산량	만톤	207	157	49	18	18	1.8	451
2021년 생산량	만톤	216	159	57	16	19	2.3	469
전년 대비 증감률	%	-4.2	-1.3	-14.0	12.5	-5.3	-21.7	-3.8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 12. 15).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서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451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물량으로는 대략 18만 톤, 비율로는 3.8% 감소한 것이다(표 참조).⁶⁾ 이는 2022년 불리했던 농업기상과 농자재 조달 여건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물량과 함께 대부분의 개별 식량작물 생산도 감소했는데, 전년에 비해 쌀은 4.2%, 옥수수는 1.3%, 서류는 14.0%, 두류는

기획 칼럼

5.3%, 기타 잡곡은 2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류만 생산이 증가(12.5%)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맥류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해 작황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⁷⁾

2021년 이후 새로운 농정의 제시와 추진

북한은 2021년부터 새로운 농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2월 말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농촌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⁸⁾ 새 농정전략은 다음 몇 가지 현상을 배경으로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17년의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이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응한 국경봉쇄는 북한의 경제침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당시 3년간(2019~21년) 식량 생산이 김정은 집권 초기 3년보다 낮아졌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당 회의(2021.2)에서 농업부문의 계획이 ‘허풍’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공개 질책과 반성은 북한 농정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농정시책 추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한 새로운 농정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는 2021년 공개한 두 가지 문건과 신설하거나 개정된 관련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첫째 문건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의(2021.9)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문이다. 이 연설에서는 농업정책에 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주로 미시적 차원의 새로운 농정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문건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3>에 대한 보도(2021.12)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거시적 차원의 농정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농정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법의 신설과 개정을 통해 기능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3> 보도 문건에 들어있는 거시적 차원의 농정전략의 핵심은 자립과 사회주의적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북한 농정이 외연 확대보다는 고립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문건에서는 1960년대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농촌 3대혁명 관철을 재차 상기시키면서 자력갱생, 계획과 지도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획 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미시적인 농정 추진과제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연설과 전원회의 <의정3> 문건에 언급된 농정과제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강조하던 농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⁹⁾ 그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을 든다면 다음 4개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 알곡 생산·소비구조의 변화(쌀, 밀 중심)
- 농업부문의 새로운 수매 전형단위와 본보기단위 창조
- 국가투자 및 지원 강화(농기계 보급, 황해남도 지원, 대부 면제)

그러나 이들 새 농정과제가 실행될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자본과 기술의 부족, 개혁의 일관성 부족, 불리한 대외 여건 등 커다란 장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농정의 추진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다. 이는 2020년 들어서면서 신설하거나 개정한 관련법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대부분 사회주의 중앙계획과 경제관리를 강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농업법,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 단위특수화 및 본위주의 반대법과 허풍방지법의 제정), 새로운 종자의 빠른 공급을 위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농장물종자관리법의 개정), 식량 작목의 생산구조 전환을 직접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농장법의 개정) 세부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2023년 2월 초에 열렸던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후속되는 회의 개최와 그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제를 예고했다. 회의 개최 예고는 한 달 후 당 중앙위 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이었다. 앞선 전원회의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더 이례적인 것은 농업과 농정을 중요 의제로 다룬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즉, 그 회의에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에 대한 2022년 성과를 결산하고 당면 농사 문제와 농업 발전의 전망목표를 토의”한다는 것이었다. 예고된 전원회의는 북한의 경제침체와 불안한 식량 수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던 주변국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발하기도 했다.

기획 칼럼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4일간) 예고한 대로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가 확대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농업 단일 의제라는 당초 예고와 달리 3개 의제를 더 상정했다. 첫째는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 정형과 일련의 중요 과업’으로서 농업에 관한 의제였고, 그 외에 ‘인민경제계획 수행 규률 확립’,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을 위한 당면 문제들’, ‘조직 문제’ 등 3개 의제를 추가로 논의했다. 이중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농업·농촌부문의 사업성과 분석
- 알곡 목표 점령을 위한 주된 농업발전 목표와 과업
- 농업생산 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시행 방도
- 농촌건설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과업

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국제적인 관심이 무색하게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2022년 농업과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가 보도에서 생략되었으며 향후 전개될 농정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한 논의도 과거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농업 의제 논의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두 가지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북한 농정당국이 현실 여건을 반영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정과제를 추진 가능한 범위로 제한해 집중한다거나, 기존에 강조했던 농업부문 과제들을 재검토해 조정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농업생산에 관한 평가가 보도에서 생략된 것은 아쉽지만, 보도 생략 그 자체로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북한 농업은 2022년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 동시에 이례적인 식량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 진단하기도 어렵다. 2022년 농업의 성과가 높았다면 회의에서 긍정적 평가는 물론 대대적인 선전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식량 위기를 초래할 만큼 농업이 부진했다면 농업에 대한 논의를 종전의 연장선상에서 평이하게 다루고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전원회의 후 내각의 집단적 반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농업 관료들, 특히 2021년 초에 임명된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실각하지 않고 유임되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¹⁰⁾

기획 칼럼

식량수급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전망

2022년은 북한의 식량수급과 농업생산에 적신호가 켜졌던 시기였다. 2010년대 중반에 강화된 경제제재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한 국경봉쇄의 부정적 효과가 한층 더 누적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2022년 북한의 농업생산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여름철 농업기상도 전년과 평년에 비해 불리했다. 화학비료 공급도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5월에는 코로나가 북한 국내로 확산함에 따라 위기를 우려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여건에서도 북한은 식량 수급과 농업 생산에 파국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다만 식량 생산이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을 뿐이다. 올해 식량 수입이 작년 생산 감소분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체 식량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제재의 부정적 효과가 한층 더 누적되고 지도와 통제에 의존한 새 농업정책의 단기효과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부족’에서 ‘위기’로 심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수급과 생산이 단기적으로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경봉쇄 해제에 따른 식량과 비료 도입의 증가, 냉전 확산에 따른 중·러의 대북 지원, 농업기상의 평년 상태로의 회귀, 밀 재배 확대에 따른 곡물 총생산의 증가 등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과 농업생산은 단기적으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농업은 경제적 기반이 극히 미약해 새로운 농정의 중장기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농업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여전히 접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단기 처방 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 칼럼

■ 참고자료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하권」, 2020년, 2022년.

김영훈,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Vol.25 No.1, KDI, 2023. 1.

김영훈, “최근 북한 농정과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4호, KREI, 2023. 3.

노동신문,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2023.3.3., (연합뉴스 2023.3.3.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에 관한 보도자료」, 각년도.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제2호, 2022,

조선노동당,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평양 중앙통신, 2021. 9. 30.

조선노동당,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의정 3, 2021. 12.

조선중앙통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023.3.2.

통일연구원, “북한 보도 기준 코로나19 현황”, kinu.or.kr/cms/content/view/938, 검색일: 2022. 8. 17

- 1) 이 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영훈의 두 기고문(KDI, 2023.1; KREI, 2023.3)을 참고하기 바람.
- 2) FAO의 추정치도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후반의 식량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보이고 있음.
- 3) FAO의 생산 통계치 기준으로는 2019~20년 2년간 연평균 85만 톤이 부족함.
- 4) 2022년 생육기 평균기온은 19.7°C로 이전 5년 평균에 비해 0.4°C 낮았으며, 강우량은 1,066mm로 5년 평균치에 비해 248mm 많았음. 그리고 일사량은 2,774MJ(megajoule)로 5년 평균치에 비해 135MJ 적게 나타났음(농촌진흥청, 2022).
- 5) 북한은 화학비료를 2021년에는 75만 7천 톤을, 2022년에는 68만 3천 톤을 각각 공급했음(농촌진흥청,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 비공개 설명자료).
- 6) 농촌진흥청은 매년 말 작황 시험, 농업기상 평가, 비료·농약 수급,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을 추정하고 있음(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2. 15).
- 7) 2021년부터 북한은 ‘쌀·밀 중심으로 알곡 생산과 소비구조 전환’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2021년 12월 당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의정 3 참조). 이 농정시책에 따라 2022년부터 밀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8)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제2호, 2022, p.120.
- 9) 중요한 농정과제는,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소출이 높은 종자의 육종과 개량, 벼농사와 밀·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 축산부문의 정책, 과일 및 남새 생산의 집약화와 전문농장 건설, 유지작물의 다양화와 생산 증대, 새로운 수매 전형단위 창조, 농업과학기술 육성, 사회주의 농촌 개편, 농업 관련 국토관리(김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평양 중앙통신, 2021.9.30.),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2.12) <의정3>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등이다.
- 10) 노동신문,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2023.3.3.(연합뉴스 2023.3.3.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기획 칼럼

황해도 재해와 식량난

허 정 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의 기후변화와 재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전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자연재해(폭염, 한파, 산불 등)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

한반도의 기후변화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박선엽·이수경²⁾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여름과 겨울 간의 기온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고, 식물의 개엽 시기가 앞당겨지며, 몬순의 패턴이 변화하는 등 지역적 기후 변화의 추세에 따라 계절의 시작과 지속 기간, 최난일이나 최한일과 같은 극한 사상의 발생도 시·공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사계절과 24절기도 변화가 나타났다.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년

<표 1>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 계절별 기온과 강수량 변화

북한 계절별 최저기온의 기후평년값 비교(단위: °C, 27개 지점 평균)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1991~2020년 (a)	3.1	17.7	5.5	-10.4
1981~2010년 (b)	2.8	17.3	5.2	-10.7
차이 (a-b)	+0.3	+0.4	+0.3	+0.3

북한 계절별 강수량의 기후평년값 비교(단위: mm, 27개 지점 평균)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1991~2020년 (a)	143.5	543.2	180.9	44.5
1981~2010년 (b)	148.6	542.7	181.9	46.4
차이 (a-b)	-5.1	+0.5	-1.0	-1.9

북한 월별 강수량의 기후평년값 비교(단위: mm, 27개 지점 평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1~2020년 (a)	10.9	15.5	21.9	44.2	77.3	99.2	236.8	207.2	92.9	47.4	40.6	18.1
1981~2010년 (b)	13.4	15.3	25.3	46.8	76.5	105.3	238.3	199.2	99.6	44.7	37.6	17.7
차이 (a-b)	-2.5	+0.2	-3.4	-2.6	+0.8	-6.1	-1.5	+8.0	-6.7	+2.7	+3.0	+0.4

자료: 『북한기상 30년보』, (2021, 25-27).

기획 칼럼

(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 상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빨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라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도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인 1997년 6월부터 8월 사이 북한 전역에 1,052mm-1,473mm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으며³⁾, 단기간 높은 강수량으로 북한 농작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재산 피해와 북한 주민의 생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한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표 2> 북한의 ‘고난의 행군’

사건	배경	내용
1938년 12월 ~1939년 3월	항일유격대 투쟁	100여 일간 항일 투쟁 시기 고난의 행군 강조
1956년 8월 종파사건	내부 권력 경쟁	내부 권력 경쟁 이후 김일성 체제 공고화
1996년 공동사설	①공산권의 붕괴 ②1995년 재해 피해 ③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1997년까지 재해재난과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 강조
2021년 4월 세포비서대회	①유엔안보리, 미국, 남한의 대북 제재 ②2020년 보건(코로나19) 재해 ③2020년 자연재해 피해	2020년 3중고 이후 2021년 세포비서대회에서 낮은 단위부터 간고한 ‘고난의 행군’할 것 강조

자료: 『북한정보포털』 및 『조선중앙통신』 참조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제15호 태풍 볼라벤), 2019년(제13호 태풍 링링), 2020년(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로동신문』, 2014/01/01)”,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있는 상황이며, 가뭄과 홍수 등과 자연 재해에 끄떡없게 만들어야 (『로동신문』, 2021/09/02)” 함을 강조했다.

북한은 2021년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산하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기획 칼럼

Forum, HLPF)에서 진행하는 자발적 국가별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다.⁴⁾ 북한은 VNR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생산량 감소, 농업 기반 파괴, 토지와 물자원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 등의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VNR, 40-41).

김정은 시기 재해 현황과 최근 주요 벼 재배지역 재해 현황

김정은 집권 이후 2022년까지 북한 내 다양한 재해가 발생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에서 크게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태풍에 의한 피해이다. 2012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북한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태풍은 10개이다. 이 중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과 2019년 13호 태풍 링링, 2020년 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은 북한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둘째,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이다.⁵⁾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 8월까지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2015년, 2016년, 2020년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피해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 8월까지 거의 매년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에는 심각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났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 기후변화와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재해이다. 북한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 세계적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발 황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을 수정 및 보충하고 환경오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말라리아, 결핵,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감염병 피해이다. 북한은 전 세계의 감염병 위험성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감염병 현황이나 북한의 감염병 지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2021년 VNR을 통해 북한의 감염병 현황을 일부 공개했을 뿐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획 칼럼

<표 3> 김정은 시기 북한 재해 발생 현황, 연도별/지역별(2012-2022)⁶⁾

		발생빈도(건)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자연 재해	태풍	1	0	1	0	1	0	0	1	1		2	7	
	홍수				1								1	
	호우, 큰물	1	0	0	2	1				3	1	5	13	
	강풍			1		1				1		2	5	
	해일			1	1					1			3	
	가뭄			1	1		1		1		1	2	7	
	지진, 3.5 이상					1			2	1			4	
	황사			1	1	2			1	2	4	1	12	
	한파	1											1	
그밖의 재해 (사회, 보건)	붕괴, 낙석	1											1	
	인명피해(사망)			1		1			1				3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1	1	0	2	1			1	3		1	10	
	건물·시설물의 파괴	1	1	1	2	1			5	7	1	1	20	
	전력,통신 마비 교통 붕괴	1	1		1	1			1	1			6	
	환경 오염												0	
	전염병, 방역, 비루스				1			1	1	1		2	6	
총 계		7	3	7	12	10	1	1	14	21	7	16	99	

		발생빈도(건)														
구분		평양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강원	양강	자강	남포	라선	개성	전 지역	계
자연 재해	태풍	1	2	1	2	3	2	2	3		1		1			18
	홍수					1										1
	호우, 큰물	1	2	2	3	2	1	3	1		1					16
	강풍		1		1	2	4	3								11
	해일						3	2								5
	가뭄	1	4	2	1		5	5	1	1	1					21
	지진, 3.5 이상				1			1	2							4
	황사									1					9	10
	한파															0
	붕괴, 낙석		1													1
그밖의 재해 (사회, 보건)	인명피해(사망)					1	1									2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1	3	2	1		1						8
	건물·시설물의 파괴		1	1	3	4	3	2	2							16
	전력·통신 마비 교통 붕괴				1	1	2	2	1		1					8
	환경오염															0
	전염병, 방역, 바이러스	1		1							1					3
총 계		4	11	7	13	17	23	21	10	3	5	0	1	0	9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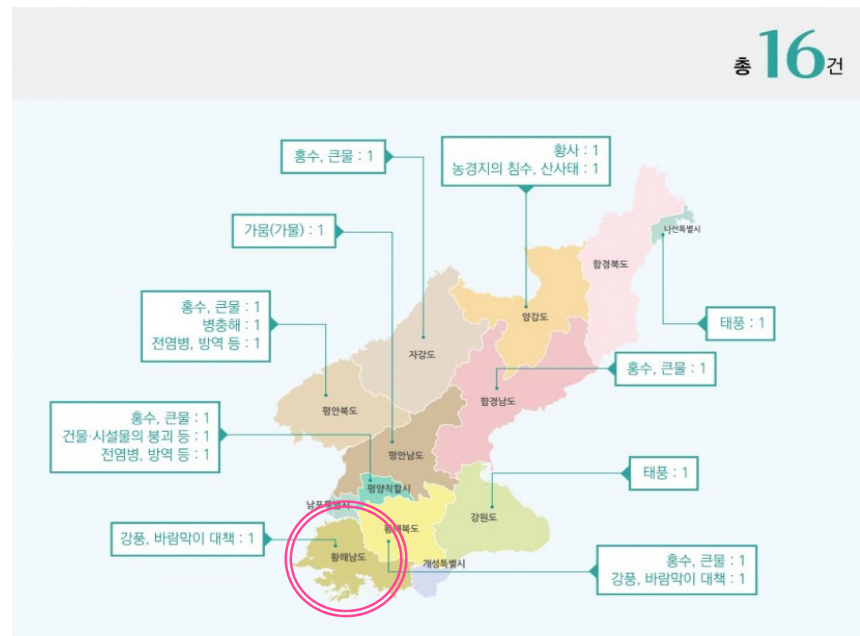
자료: 강택구 외 (2016: 26-28, 참조 및 저자 수정보완); 『로동신문』 (2012/01/01-2022/12/31); 『DAILY NK』 (2012/01/01-2022/12/31, 주요 재해 발생현황 자료 참조).

『통계청』 ‘북한 벼 재배 면적조사’자료를 확인⁷⁾하면, 북한 내 최대 벼 재배 지역은 황해남도이며, 다음으로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

기획 칼럼

북도 순이다. 북한은 황해남도를 최대 곡창지대로 선정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황해남도 지역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붕괴하고 공공건물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⁸⁾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황해남도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현지지도하여 신속한 재해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지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이후 북한은 우선적으로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해 관련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여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황해남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농기계 5,500대 지원 등)⁹⁾와 농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특히 「량정법(2021)」 개정과 「허풍방지법(2022)」 및 「농촌발전법(2022년)」 제정을 통해 식량증산정책을 체계화하였다.

〈표 4〉 2022년 북한 재해 피해 현황



※ 북한 언론 매체에서는 북한 재해 피해 현황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Daily NK의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재해 피해현황을 확인하였음.

기획 칼럼

<표 5> 북한 벼 재배 면적

단위: ha

시도	2019	2020	2021	2022
전체	557,016	540,697	544,006	539,679
황해남도	145,907	141,260	142,004	140,098

자료: 「북한벼재배면적조사」, 통계청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 재해 피해와 식량난 비교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6년에 있었던 자연재해(홍수) 피해이다. 특히, 북한 황해남도 해주 지역에 1일 최대 223mm의 비가 내리고 1일 80mm 이상 강수가 3일이나 지속되면서 북한 최대 곡창지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주요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지원 없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던 북한 사회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배급제의 후퇴, 장마당의 형성, 북한 이탈주민 급증 등)했고 나아가 아사자도 다수 발생했다.

<표 6> 2022년 북한 재해 피해 현황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비고	2020년	비고	2021년	2022년	비고
황남	해주	80mm이상/1일	2일	4일	3일	재해 (홍수) 피해	3일	(홍수) 재해 피해	-	3일	재해 피해 없음
		최대(mm)/1일	132	140	223		137		70	148	
		연강수량(mm)	1321.2	1046	1130.8		1,330.60		943.6	1,285.70	
		1-6월 강수량(mm)	476	322.8	352.3		366.30		388.7	360.10	
	웅연	80mm이상/1일	2일	2일	1일		2일		1일	1일	
		최대(mm)/1일	119	100	133		144		85	83	
		연강수량(mm)	1160.5	648.4	813.8		1346.8		1131.3	1099.9	
		1-6월 강수량(mm)	409.4	279.8	305.8		358.8		440.2	377.6	
황남	벼 재배 면적 (단위: ha)						141,260 ha		142,004 ha	140,098 ha	
북한 식량생산 (정곡기준)(단위: 천톤)		식량									
		쌀	1,502	1,211	1,340		2,021		2,156	2,074	
		옥수수	2,138	1,851	1,976		1,513		1,587	1,566	

자료: 「통계청」 자료 참조하여 저자 작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2020년 자연재해가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발생시켰다. 2020년 북한의 3중고(苦)(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코로나19, 대규모 수해피해) 상황 이후 김정은은 2021년 세포비서대회에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설명하면서 낮은 단위부터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김정은은 황해남도 수해 피해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특히 재해 피해로 인한 2차 농업 피해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을

기획 칼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에 2020년 보다 더 많은 비가 단시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같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재해 피해 감소와 식량 생산 안정

최근 북한의 재해 피해 감소와 식량 생산 안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재해 관련 법 체계 변화이다.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북한의 흩어진 재해 관리체계를 하나로 정립하였다. 이후 2020년 북한의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대폭 수정보충하여 북한의 새로운 재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해 관리 총괄 책임자를 ‘내각 총리(김덕훈)’로 지정하고 재해 대응 및 복구 중심이 아닌 재해 예방에 집중하여 반복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농업 관련 법 변화이다.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농업 관련 5가지 기조 아래 제도화를 신속한 진행하였다.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곡물 수확 후 손실분 절감을 위한 농장의 책임강화, ▲화학비료, 농기계 등 공급 강화,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곡물유통관리를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은 식량증산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7〉 김정은 시대 최근 농업 관련 제도화 현황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	주요 내용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농장법(2022 개정)	수확 후 손실분 절감 제도화
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2021 개정)	농자재 공급 제도화
허풍방지법(2022 제정),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2021 제정)	곡물생산 및 통계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제도화
량정법(2021 개정), 수매법/사회급양법(2022 제정)	곡물유통관리체계 제도화
농촌발전법(2022 제정)	농촌 균형발전 제도화



식량증산

자료: 김일한, “북한 식량증산정책 법제화: 정부의 시장개입과 자율성의 강화,” (현대북한연구회 발표자료, 2023.6.14.).

기획 칼럼

셋째, 식량안정을 위한 주요 권력자의 ‘현지료해’이다. 2023년 1월부터 5월 사이 내각 총리 겸 비상재해대책위원장인 김덕훈은 재해 예방과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한 황해도 ‘현지료해’를 아래 표와 같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표 8〉 최근 주요 권력자의 재해 및 농업 현장 ‘현지료해’

날짜	주요 보도
2023.1.26.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2.15.	김덕훈,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 진행
2023.3.22.	김덕훈,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소집
2023.4.3.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4.5.	김덕훈,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2023.4.11.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5.3.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5.9.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5.16.	김덕훈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2023.5.29.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북도, 개성시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자료: 『로동신문』, 2023.1.1.~2023.5.31.

넷째, 황해남도의 지역발전과 농업의 발전이다. 북한은 황해도 지역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황주긴등물길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주긴등물길공사’는 북한이 2020년 6월 착공한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통해 황해도 지역의 관개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한은 황주긴등물길공사를 통해 황해도 지역의 재해 예방과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표 9〉 북한 황해도 지역의 재해예방과 농업 발전을 위한 황주긴등물길공사

보도날짜	황주긴등물길공사 경과	주요 내용
20.6.3	황주긴등물길공사 착공	착공, 황해북도의 알곡생산 보장을 위해 황주긴 등별 관개용수 보장 공사 시작
22.4.3	황주긴등물길공사 현지료해(김덕훈)	공사 현장 현지료해를 통한 공사계획 점검
22.4.7	황주긴등물길공사 진척	평안남도려단의 건설자들이 수천m의 굴진작업을 끝내고 사단적으로 제일먼저 물길굴을 관통
22.7.27	황주긴등물길공사 진척	황해남도려단과 황해북도려단, 평양시려단에서 맡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중
22.8.24	황주긴등물길공사 진척	90여개의 야외구조물공사를 완성하고 흙물길, 물길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기획 칼럼

보도날짜	황주진등물길공사 경과	주요 내용
22.12.30	황주진등물길공사 진척	물다리를 비롯한 170여개의 야외구조물공사를 완공, 수백리의 흙물길 건설을 마감단계 진행 중
23.3.3	황주진등물길공사 진척	황해북도려단에서는 10여만 ^m ³의 토량을 처리하고 명굴기초굴착을 70% 진행, 평양시려단에서는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잠관기초굴착 종료
23.4.14	황주진등물길공사 진척	사단지휘조에서는 물길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맞게 시공지도력량을 보강하여 반복시공이 나타나지 않게 앞질러 대책을 세워 물길건설에서 보다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
23.4.27	황주진등물길공사 진척	물길건설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수십만 ^m ³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수백 m의 도갱 및 확장굴진을 진행, 명굴과 물길굴, 잠관을 비롯한 구조물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 중
23.5.13.	최룡해 위원장 황주진등물길 공사정형을 현지료해	

자료: 『로동신문』, 2020.06.03.~2023.04.30.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위와 같은 ‘재해 관련 법’ 및 ‘농업 관련 법’ 개정, ‘주요 권력자의 현지료해’ 및 ‘황해도 지역 인프라 개선’을 통해 먼저 재해를 예방하고 다음으로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난을 예방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환경부 편. 202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113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023/01/15).
- 2) 박선엽·이수경. 2019, “한반도 절기 기온의 기후적 변화와 지리적 특성,”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2 No.3.
- 3) 이 강수량은 연강수량과 같은 수치이기도 함.
- 4) VNR은 2030 의제의 핵심 부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동참하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도전, 교훈 등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이다.
- 5)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청(KOSIS) 자료에 의하면, 연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연도 2012년, 2013년, 2015년, 2020년이다.
- 6) 코로나19 발병현황은 별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재해 피해를 중심으로 빈도를 기입하였음.
- 7) “북한재배면적조사,” 『통계청』 검색일 : 2023년 6월 2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531&conn_path=I3> .
- 8) “당의 방침집행을 태공하여 태풍9호에 의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와 강원도 일군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교훈을 찾기 위한 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9.5.
- 9) “황해남도 일대에 군수공업부문에서 새로 만든 농기계 5,500대 일제 보급,” 『로동신문』, 2022년 9월 28일.

기획 칼럼

북한의 식량 유통 프로세스 :곡물, 야채, 육류, 수산물 공급 체인망 중심으로¹⁾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양이나 성급 국가기관의 간부, 군수공장 종업원 및 군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은 식량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장마당에 유입되는 식량 규모가 상당하며, 이것이야말로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식량 대부분이 비공식 영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장마당에 ‘쌀’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협동농장과 같은 공식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장마당으로 더 많이 유통·판매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개인이 텃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은 주로 채소나 과일 중심이며, 돼기밭에서는 대체로 자가 소비용 옥수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조차도 산림보호정책에 의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에 나무를 뺏백이 심으면 당연히 그늘이 생겨 곡물은 자라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 스스로 돼기밭 가꾸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다면 공식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량은 왜 장마당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가? 동시에 농민은 왜 더욱더 비공식 영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 이와 더불어 도시 주민 밥상은 왜 더 다양해지는가? 채소나 육류, 수산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북한 식량 유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허풍방지법’을 통해 본 북한 곡물 유통

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이른바 ‘허풍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그에 앞서 2021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은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간부들을 질타했다. 이는 그만큼 북한 농업 부문에서 과도한 목표치의 설정과 더불어 과소평가된 허위 식량 수확량 보고가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에서 곡물 수확고에 대한 허위 보고 풍토는 매우 오래된 고질병이다. 오죽했으면 총련계 재일 조선인이 1980년대 북한 협동농장에 1년간 체류하면서 겪은 경험 속에서 식량 생산량 허위 보고 실태를 책으로 출판하여 폭로하기까지 했다.

기획 칼럼

그런데 이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 중국, 구소련 등에서도 만연한 현상이었다. 당해 곡물 수확고가 높으면, 그만큼 다음 해 목표치가 올라가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근본 원인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도시 공장기업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협동농장에도 국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농장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문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비료도, 종자도, 기계 부품도, 트랙터(트랙터)를 돌릴 기름도, 운반할 소도 농장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체계로 점차 변해 갔다.

이는 바꿔 말하면 농장이 국가 수매계획과는 별도로 몰래 이른바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야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더욱더 수확고를 더 낮게 보고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식량을 국가 몰래 은닉해야만 협동농장도 자체로 팔아 종자도 사고, 비료도 마련하고, 트랙터(트랙터)를 돌릴 기름도 구입하여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간부들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사적 주머니를 채우는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치는 일은 고착화되어 갔으며, 이는 대체로 가을 수확기에 재배되는 식량이나 식량을 판 돈으로 받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풍이 허풍을 낳는’ 형국이다. 즉, 식량은 협동농장과 연계 속에서 개인 손에 넘겨져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비공식 영역에 더 힘쓰는 농민과 풍성해진 채소와 육류

한편, 협동농장이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장원에게 배분되는 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에게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나온 초과 수확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율 처분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포전담당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수매량이 줄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영농 자재 또한 농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농장이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이 그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농민들을 더욱더 비공식 부문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별도의 현금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토지뿐만 아니라 돼지, 염소, 오리, 닭 등 축산도 겸해야 한다.

그런데 소토지에서는 주로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돼

기획 칼럼

지와 술도 함께 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옥수수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는 술을 제조하고, 그 찌꺼기로 돼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토지가 경작되는 지역에서는 술을 제조하는 집들이 집적되어서 <그림 1>과 같이 이른바 ‘술촌’이라고도 불리는 곳도 있다. 또한 술안주로 가장 손꼽히는 식품이 두부이다. 따라서 두부도 함께 만든다. 이렇게 제조된 술과 가축 및 두부가 직접 인근 장마당이나 혹은 중개 상인을 통해 장마당에 팔리는 것이다.

<그림 1> 함경남도 소토지 경작지와 술 만드는 마을 형성



출처: Google Earth에 의해 필자 작성

한편, 이제는 개인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하는 곳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큰 수익원이 된다. 따라서 종전에는 제철에만 등장한 야채를 한겨울에도 살 수 있게 되었다. 1월에도 돈만 있으면 딸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상당히 편리한 일이고 농민 입장에서는 제철보다 몇 배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득 원천이다.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야채로 갈린다.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오이와 고추, 토마토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현재 쑥갓, 양배추, 홍당무, 상추, 호박 등으로 다양해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통의 발달로 인해 도와 도 소재지뿐만 아니라 도 내에서 물류가 형성되어 농촌과 도시를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 체계의 발달로 인해 농촌 주민이 직접 도시에 나오지 않아도 도시 시장으로 농산물이 팔리고 있다.

기획 칼럼

밥상에 수산물은 왜 오르는가?

한편, 2010년을 전후로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외화벌이 수산물 기지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의 경우 6월~8월 오징어 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샅벌이 노동자가 이곳으로 집중될 정도로 대북 제재 직전까지 활성화가 되었다. 따라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면, 청진이나 김책 등 동해의 수산사업소가 수산물 가공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인 자본 또는 돈주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었다. 특히, 원산에서 청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잡힌 수산물은 나선으로 집중이 되어 중국으로 보내진다.

주목할 점은 외화벌이 수산물 기지가 증가할수록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또한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은 조건이 엄격하여 조건 미달일 경우, 국내용으로 값싸게 팔린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중국에 넘기느니 차라리 내수 시장에 더 비싸게 파는 편이 이익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 시장에 수산물 매대가 생기게 된 동인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냉동 탐차 등 각종 운송 수단 및 물류 체계 형성에 힘입어 수산물은 전국 각지에 팔리게 되었다. 평양뿐만 아니라 내륙 혜산에서도 각 지역에서 온 수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청진수산사업소 변천 과정



기획 칼럼

<그림 3> 김책수산사업소 변천 과정



출처: Google Earth에 의해 필자 작성

따라서 종전에는 수산물을 먹기 힘들었고, 특히 내륙은 육류보다 수산물이 더 비쌌다. 동태국 냄새가 나면 ‘야 껌포(재일교포)네 집이구나’, 하며 제일 잘 사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동해바다의 생선이 제일 귀해서 책임 비서에게 설날에 수산물로 인사하기는 필수였다. 동태는 당시 최고의 뇌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외화벌이를 통해 수산 기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동태 가격이 돼지고기의 3배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지금은 소고기를 짝으로 해서 주어야 뇌물로 통할 정도로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흔해졌다.

‘양곡판매소’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대략 3~4년 전에 ‘양곡판매소’가 나왔다. 이는 당국이 곡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즉,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양곡판매소는 계획경제 시절의 식량 배급소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 가격이 아닌 장마당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장마당에서 쌀 1kg에 북한 돈 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양곡판매소에서는 그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3,8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양곡 판매소로 쏠리게 되어 시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양곡판매소는 시장적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주민 삶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획 칼럼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해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양곡판매소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양곡판매소에 일단 식량 공급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데 있다. 국가가 양곡판매소를 운영하려면 충분한 지원과 공급이 있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재원이 없어 물량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양곡판매소 또한 현재 국영 상점의 운영과 같이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선뜻 나서서 판매하겠다는 운영의 주체가 나타나기 어렵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시장이 존재하니 굳이 양곡판매소에서 판매할 유인이 적은 것이다.

물론 협동농장과 같은 국가기관은 자체 비축 식량이 있어 양곡판매소에 판매할 곡물이 있다. 기계를 돌리기 위해 기름을 사거나 농약, 비료, 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 추수기에 식량을 비축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양곡판매소에 식량을 판매하려면 공식 문건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협동농장의 여유 자금이 드러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협동농장의 쌀 횡령 규모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허풍방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시장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실제 양곡판매소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일은 이만저만 불편한 일이 아니다. 우선 다양한 곡물 구입이 어렵다. 북한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아진 계층들은 더 나은 국내산 쌀을 찾는다. 즉, 장마당에 가면 쌀도 등급별로 나누어지는데, 돈 있는 가계는 더 좋은 쌀을 사 먹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건강을 위해 다양한 잡곡을 먹는 추세인데,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곡물을 양곡판매소에서는 찾기 힘들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장마당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니 좋은 쌀들, 다양한 곡물들은 양곡판매소로 쏠릴 수 없다. 대부분 양곡판매소에서 판매되는 쌀은 중국산이다. 중국산이 국내산 쌀보다 저렴하니 할 수 없이 양곡판매소로 수입산 쌀이 집중되는 것이다. 수입산 쌀은 찰지지도 못하고 영양가가 적다고 해서 선호도가 낮다. ‘장립종’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쌀과 같이 길쭉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쌀이다. 따라서 지금은 수입산 쌀은 주로 영업용으로 소비된다. 우리도 식당에서는 질이 좋지 않은 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장에서 파는 두부밥이나 인조 고기밥도 대부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

기획 칼럼

산 쌀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영업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주로 양곡판매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양곡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곡물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에는 불편이 따른다. 양곡판매소가 주민 지구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정되어 있어 접근도가 떨어진다. 설령 주변에 있다고 해도 판매량이 적다 보니 줄을 길게 서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입에 성공했다고 해도, 양곡은 그 자체가 무겁다. 그런데 시장은 배달 서비스가 발달되어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이 가능하지만, 양곡판매소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어 무겁게 직접 집까지 들고 와야 한다.

다만, 양강도 혜산은 양곡판매소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혜산은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 국내산 쌀이 매우 비싸다. 특히 양강도 혜산은 북한 전역에서 제일 추운 지역에 속해 쌀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양강도 주민들은 감자를 많이 먹어 감자가 유명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청진, 평성을 비롯해서 심지어 신의주 지역도 시장에 판매되는 쌀 중 국내산 비중이 90%가 넘는다. 그러나 혜산은 생활수준이 높아져도 시장에 국내산과 수입산 쌀 비중이 여전히 5대 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입산 쌀 비중이 높다. 반면에 중국산 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따라서 저렴한 수입산 쌀이 양곡판매소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에 하나가 있을 양곡판매소가 혜산에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이와 같이 전국 단위에서 보면, 양곡판매소는 군에까지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충분한 식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이 연구는 2019년 전후 탈북한 이탈주민 20명에 대한 필자의 면담 결과 및 위성지도 분석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정책동향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채 수 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그림 1> 2023.4.26(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당시 모습



출처: KTV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은 ‘확장억제 공약의 의지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과 ‘한미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된 ‘확장억제 공약의 의지와 내용’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즉각적으로 협의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 해역에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SSBN)을 포함한 핵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은 약 170미터 길이로, 사거리 7천 킬로미터가 넘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고, 총 80개의

정책동향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미 해군은 현재 14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승조원 155명이 탑승해 핵추진 동력으로 평균 77일 정도를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미국의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상시 한반도 해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논의된 두 번째 한미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은 이미 2022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 억제 협력방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확장억제 작동 상설협의체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나토의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유사한 체계를 말한다. 유럽의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 27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해 만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일종의 다자간 협의체로, 일종의 나토식 핵 공유이다.²⁾ 그러나 NCG는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협의체이며 NPG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핵전략 사용의 기획과 실행에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핵심은 북핵 대응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의지와 이익을 보다 강하게 반영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³⁾ 핵협의그룹(NCG)은 차관보급 안보협의를 연 4회 개최하여 정보공유, 협의, 전략기획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고 장관급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 2016년부터 가동한 한·미 간 핵위협에 대비해 국방 및 외교차관급 회의 운영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와 비교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⁴⁾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한미가 핵을 공유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의 해석이 다르고 미국의 정치권·학계의 해석도 각기 다르다. 이를 두고 지나친 평가절하 혹은 지나친 의미확대는 차지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정책동향

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사용 결정과정에 더 크게 관여하면서 한국은 이전보다 발전된 확장억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혹독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차후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워싱턴 선언의 한미 확장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앞으로 한국은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실천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면 한미 간에 북핵 정보에 대한 긴밀한 공유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분기별 차관보급 회의를 상설화하여 군사적으로 확장억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구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실상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신냉전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⁵⁾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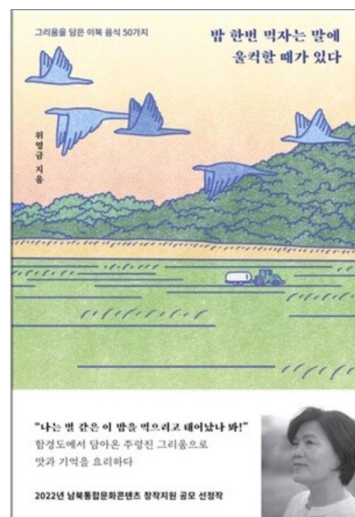
- 1) KBS, 미 국방부 “한국 전개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2880>.
- 2) 동아일보, 韓美 NCG 모델된 ‘나토 NPG’, 유럽의 ‘소련 핵 공포’ 잠재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27/119049180/1>.
- 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87>.
- 4) 2023. 7.3.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70주년 기념 심포지움-2세션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정연봉 부원장 발표내용.
- 5) 2023.6.15. KMI 제2회 북한이해콜로키움, 창원대 이기완교수 발표내용.

北 리뷰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위영금 저, 2023)

이 현 희

(21C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에서의 식문화는 삶이고 생존 그 자체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중국과 소련의 국경분쟁 심화를 비롯한 당시 국제 정세로 인해 북한 당국은 4대 군사노선의 강화를 추진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독려했다.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1962년 10월 23일)에서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흰밥)에 고기(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

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며, 그 연설은 유훈으로 남았고, 2010년 1월 김정일 시기와 2019년 3월 김정은 시기에 다시 반복되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 현실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먹거리는 신념이나 가치보다 우선했다”라는 저자의 표현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서둘러 책을 읽게 한다.

함경북도 고원군이 고향인 저자는 2006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이후 글을 쓰며 북한학을 공부했다. 그는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자유를 찾아온 탈북이라기보다 “누군가는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한 것일지 모를 말이지만 나는 밥을 먹겠다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한다. “밥을 먹겠다고 얼마나 비굴했는지 모른다. 밥을 먹지 못해 가족을 잃었고, 밥을 얻으려 별일을 다 한다. 밥은 곧 생명이고, 하늘이고 신이다”라는 저자는 “밥”을 성공한 삶이라 표현한다. 이는 어쩌면 우리의 근대사와도 궤를 같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사는가?’ 하는 물음에 ‘먹기 위해 산다’라고 스스로없이 말했을 근대사의 보릿고개 시절 춘궁기를 소환해본다. 삶의 여정에서의 배고픈 경험은 “밥이 있어야 한다. 먹어야 숨 쉬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밥은 하늘이고 신이

北 리뷰

다”라는 공감을 끌어낸다.

책은 저자가 재북 당시 곤궁한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고향의 맛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로와 그리움을 담은 이북 음식을 매개로 하여 음식과 인생 장소에 관한 기억을 이야기로 담고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 음식 50가지를 소개하며 그 음식에 관한 저자의 에피소드와 기억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과 소중한 삶을 동시에 전한다. 북한의 식문화와 사회 변화상 등을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내용 흐름은 상황마다 때로는 아프지만 담백하다. 또한 요리법에만 치우치지 않고 북한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 북한 문화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음식을 대하는 저자의 경험담을 보면, 밥은 꼭 맛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의 상황 감정 등 어찌면 시대상까지 어우러져 기억 속에 그 음식이 각인되는 모양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각자 나름의 잊고 있던 고향 음식의 맛과 그리움까지 가슴에 전해진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추억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밥 한 끼가 고달픈 이들에게는 힘이 되게 한다.

헤스톤 블루멘탈은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기억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다. 편안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대비된 상황으로 끼니 해결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선명한 아픔을 기억하는 저자는 “끓주림이 일상을 덮쳤다. (중략) 존재도 알지 못했던 장마당이 갑자기 늘어났다. 먹거리는 신념이나 가치보다 우선했다”고 말한다. 독자들은 생소한 북한 사회상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음식을 통해 살아왔던 고향 사람과 그 생활에 대한 그리움, 삶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그런 음식, 알타리김치(총각김치)는 그리움이 사무칠 때 만들게 되는 음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대로 고향의 어머니 음식을 기억하며 그리워한다. 저자 또한 엄마의 알타리무가 한없이 그리울 때 글을 통해 이미 고향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저자는 현재에도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밥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밥을 먹겠다는 이유로 비굴했었고 밥을 먹지 못해 가족을 잃었으며, 밥을 얻으려 별일을 다 했다고 경험담을 풀어낸다. 밥은 곧 생명이자 하늘이고 신이

北 리뷰

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밥솥을 열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쌀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연거푸 말한다. 지금도 삶에서 쌀밥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며 이것을 먹으려 얼마나 험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밥 한술이 없어 먼저 간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반찬이 없어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밥이 있으면 간장만 넣고 비벼 먹어도 좋다. 뜨거운 밥을 그냥 삼켜도 좋다는 밥 예찬가이다.

책을 읽다 보면 맛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저자는 맛에 대한 욕망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바람이 차갑고 나무에 맺힌 빗방울이 눈물처럼 느껴질 때면 엄마가 만들어준 뜨덕국(수제비)이 간절하고, 강냉이밭의 바람 소리는 신들이 걸어오는 소리처럼 거룩했고 꼬장떡은 생명이자 희망이었다는 표현에서 저자는 삶에 대한 가치와 힘을 음식의 맛에서 추억하는 것 같다.

밥이 곧 신이라 생각해서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심쿵’ 한다는 저자는 두루 잃어서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는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다가온다고 하며 그 말은 밥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고 밥을 사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스스로도 이제는 누구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책에 ‘신’이 자주 쓰인다. 밥 한술이 없어 가족을 잃었던 저자에게는 밥이 곧 생명, 하늘, 신임에 공감한다. 그리움과 아픔으로 별처럼 빛나는 밥으로 표현되는 고향과 가족은 체제를 넘어 먹먹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까...’ 책을 통해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에게 여운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한 작가의 담담한 마음처럼 이 책은 내 마음에 저장되었다. 저자가 소개하는 한 끼 밥의 의미와 소중함, 그리고 고향을 그리는 북한의 식문화가 맛과 기억을 통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자의 소망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음식은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의 절반은 기억이라는 저자는 ‘나의 삶과 함께 한 맛과 기억을 요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자는 그저 담담하게 표현한다.

고향 그리움이 가득한 최고의 시적 표현이다. 독자들에게 저자의 마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北 리뷰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
(주영하 저, 2023)

김 혜 원

((사)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일컫는다.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것이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안부 인사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 오랜만에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며 '밥은 먹었니?'라는 질문으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한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

동체인 가족을 '식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음식이 삶을 영위하는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과 여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소비와 식단 다양성의 수준이 낮아 2023년 하반기에 들어 식량안보에 심각한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COVID-19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악화한 장기 경제 위기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¹⁾ 북한의 식량 사정을 연구한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분단 이전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소개하면서 당시 신문과 서적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음식을 소개한다. 단순히 어떤 음식이

北 리뷰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조리법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사용하던 용어와 섭취 방법 등이 담겨 있어 북녘의 식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책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북한의 음식은 남한의 것과 맞닿아 있다.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잡채에는 당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양재하'라는 인물은 사리원에서 1910년대 광흥공장을 설립했는데, 이곳의 주력상품 중 하나가 당면이었다. 함경남도는 소면으로 유명했는데 말린 국수가 유통과 보관에 편해 발전하게 되었다. 전쟁 중에 냉면 제면기를 만난 함경남도의 말린 국수는 이후 부산의 밀국수로 재탄생했다. 남북한의 식생활과 문화가 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남북한의 기본적인 식사 구조는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 분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질화되었지만 식문화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 관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바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0.0%)',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하는 것(13.2%)',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져야(8.8%) 한다'는 것이다.²⁾ 이 과정에서 문화의 한 부분인 음식은 남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북녘의 음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말한다. 음식의 소프트 파워 역할이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소프트 파워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하드파워 수단인 무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소프트 파워가 주로 사용하는 자원의 주요 형태 중 하나가 문화이다.³⁾ 이처럼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 미래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다.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를 통해 일제강점기 북한 음식의 모습에서 분단 이전 북한의 생활상과 식문화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과거 북한 주민들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는

北 리뷰

것이 아니라 현재 남북한의 관계와 통일에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 통일 한국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까지 엿볼 수 있었다. 분단 이전 북한의 음식은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음식'이라는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는 북한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1) WFP and FAO, 『Hunger Hotspots FAO-WFP early warnings on acute food insecurity: June to November 2023 outlook』 (Rome: WFP and FAO , 2023), p. 9.
- 2) 김범수 외, 『2022 통일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15
- 3) Joseph S Nye. 홍수원 옮김, 『(외교전문가 조지프 S. 나이의)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 33-39.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3년 4월~6월)

진 희 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교수)

<2023년 4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4월 2일	우리는 충성과 보답의 향로만을 안다	-‘남포수산업소’에서 얼마 전 올해 첫 출항 -첫 출항을 앞둔 사업소에 김정은 총비서가 현대적 어선과 ‘냉장운반선’을 선물 -‘남포수산업소’는 올해 1/4분기 물고기잡이계획을 초과 완수
Voice of Korea	4월 4일	먹이보장에서 중시한 문제	-‘알곡먹이’ 비중을 줄이면서 먹이 문제를 원만히 풀고 있는 ‘운하종어사업소’의 경험 소개 -‘큰단백꿀’과 짐승뼈를 비롯한 ‘비알곡먹이’를 종어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물고기 생산 활성화
노동 신문	4월 8일	각회도간석지 건설을 위한 20만산 대발파 진행	-4월 7일,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각회도간석지’건설을 위한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 -‘각회도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담보 마련
노동 신문	4월 8일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할 간석지내부망 공사	-‘월도지구’ 등 이미 개간된 간석지에 ‘규격포전’을 만들고 물길과 구조물 등을 건설하는 ‘내부망공사’ 본격 추진 -간석지를 개간하였다고 즉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 ‘규격포전’으로 정리하고 관개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물길과 구조물을 만드는 등 여러 공사를 하여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음 -간석지 ‘내부망공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체계를 세우고 완강하게 추진해야 함 -특히, ‘염기견딜성벼종자’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北 소식

노동 신문	4월 8일	수산물가공공정 의 흐름선화 실현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학부’ 연구사들이 어느 수산사업소에 확립한 ‘흐름식물고기랭동 블록생산공장’이 성과를 내고 있음 -물고기 선별과 세척, 계량 등 모든 공정이 컨베이어와 이송장치들에 의해 완전한 ‘흐름생산체계’를 갖추 경제적 실리가 매우 큼
노동 신문	4월 11일	석화간석지건설 장에서 20만산대발파 진행	-4월 10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석화간석지’건설을 위한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 -대발파의 성공으로 수십만m³의 토량과 막돌을 확보해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
노동 신문	4월 11일	2022년 인민경제 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공동순회 우승기 수여	-해양수산 관련 분야 수상 단위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 ‘곽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다사기계화분사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 ‘송림해운사업소’,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갈마식료공장’, ‘남포항’, ‘평양해운사업소’
내나라	4월 14일	바다가양식에 힘을 넣어	-서해의 이름난 바다나물 생산기지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소개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노동자구’ 앞바다는 바다나물과 조개류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섬에 둘러싸여 있어 양식업에 매우 적합 -사업소는 연안에 수백 정보의 바다 동식물 양식장, 서식장을 갖추어 놓고 다시마, 미역, 김, 굴, 섭조개 등 바다 동식물을 수확
노동 신문	4월 21일	종업원들이 좋아한다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양어장을 꾸려 종업원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

北 소식

조선중앙통신	4월 21일	각지 수산·양어 단위에서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서해의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 등은 자재 보장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 배 수리에서 혁신을 창조 -동해의 ‘홍원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등은 ‘배수리일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벌여 어선의 성능을 일신 -‘태천군쏘가지종어사업소’, ‘덕천시그물우리양어 및 어로사업소’ 등 평안남북도의 여러 양어단위에서 수억만 마리의 ‘어린고기’ 방류
노동신문	4월 22일	양어먹이용 첨가제를 국산화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과학자들이 양어먹이용 주요첨가제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에서 실적을 내고 있음 -과학자들은 향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공인되어있는 ‘비타민A류사체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으며, 우량한 균주를 선발하였으며 비타민A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 -비타민A 함량이 높은 첨가제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과학자들은 메기, 미꾸라지, 칠색송어, 철갑상어, 쏘가리 등을 기르는데 적용해 전보다 훨씬 높은 ‘증체률’과 ‘사름률’을 기록
노동신문	4월 25일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중시한 문제	-강원도, 칠색송어 새끼고기 ‘사름률’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성과의 주요인은 물 온도 보장과 먹이 공급 과학화, 새끼고기의 성장에 적합한 온도의 지하수를 찾아내고 영양가가 풍부한 ‘배합먹이’를 만들어 이용

北 소식

노동 신문	4월 25일	새끼물고기 방류를 대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각종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 사업 -각지 양어단위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종자물고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새끼물고기’를 충실하게 키우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번식과 방류기술을 더욱 세련시키고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에 알맞은 우량 품종의 새끼물고기들을 더 많이 육종해야 함 -각지 양어단위에서는 바다와 강하천, 호수와 저수지의 ‘새끼물고기서식’ 정형을 정상적,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실정에 맞게 ‘수산자원보호시기’와 ‘보호구역’을 정확히 정하고 ‘인공어초조성’을 비롯 ‘새끼물고기’ 성장에 알맞은 사적 조건을 마련해야 함
노동 신문	4월 29일	수질개선에 효과적인 생태띄우개	-강과 호수의 부영양화는 용존산소량을 저하시키고 수생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생태환경을 파괴.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속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의 과잉 -강과 호수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심화 되어 적지 않은 성과 이룩, ‘생태띄우개’ 기술도 그중 하나 -‘생태띄우개기술’은 인공적으로 만든 띄우개에 식물을 심어 재배하면서 물을 정화하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하면 띄우개에 심은 식물이 뿌리를 통하여 물속의 질소와 인을 흡수하면서 ‘떠살이 동물’과 ‘마름류’의 대량증식을 제한해 오염된 물을 효과적으로 정화

北 소식

<2023년 5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5월 2일	과학적인 비배관리로 바다나물 생산계획 완수	-각지 수산단위에서 4월 ‘바다나물생산계획’ 완수 -서해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작황이 좋은 다시마부터 먼저 수확하는 한편 ‘골배’의 기동성을 높여 수천 톤의 다시마 생산 -동해의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는 비배관리 과학화와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참미역과 다시마를 생산
노동 신문	5월 11일	새끼련어를 강하천들에 방류	-지난 4월, ‘사포방류어업사업소’에서 새끼태평양련어 18만 마리를 강하천에 방류
내나라	5월 13일	산촌의 양어장	-자강도 강계시의 ‘홍주닭공장’, ‘양어작업반’은 2019년부터 ‘홍주청년1호발전소’ 수역에 ‘그물우리양어장’을 설치 -양어장의 면적은 1,250㎡로 크고 작은 20여 개의 ‘그물우리’가 있으며, 1년생에서 3년생에 이르는 룡정어와 열대붕어, 잉어 등을 생산 -양어장에서 생산한 물고기는 공장종업원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용될 뿐 아니라 강계시 내 육아원, 애육원 등에도 공급
노동 신문	5월 16일	김덕훈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황해북도 영농 추진현황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남포항’을 현지료해 -김덕훈 총리는 남포항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화물취급의 신속성을 원활하게 보장할 것을 강조

北 소식

조선중앙통신	5월 17일	함경북도에서 수산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집중	-‘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서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와 ‘련진수산사업소’를 본보기로 모든 수산사업소에 ‘순환형새끼명태생산체계’와 과학적 종어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전개 -‘청진수산사업소’, ‘석호바다양식사업소’등 수산, 양식사업소에 양식장 면적 증대와 ‘혼합양식’ 활성화에도 주력
노동신문	5월 18일	새로운 알깨우기 설비를 제작하여	-함경북도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는 새로운 ‘알깨우기설비’를 제작해 ‘알깨우기틀’을 이전보다 높였으며, 얼마 전 수십만 마리의 ‘새끼련어’를 도내 여러 하천에 방류
조선중앙통신	5월 21일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 성과 확대	-서해지구의 ‘문덕수산사업소’는 ‘두통식안강망선’의 가동률을 높여 수천 톤의 ‘건탱이’를 잡았으며, 5월에 들어 수백 톤의 ‘까나리’ 어획 -동해지구의 ‘김책수산사업소’는 물고기떼의 움직임을 제대 포착하고 어로수단과 장비를 집중하여 ‘5월송어잡이계획’ 완수
노동신문	5월 25일	바다에서도 땅우에서도 창조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 간해방류어업사업소를 돌아보고	-‘간해방류어업사업소’의 성과 소개 -‘파바줄’과 ‘파그물’을 수집, 이용하여 해마다 양식장 면적을 늘려 바다나물 생산계획 초과 달성 -인공어초 조성과 방류어업을 끈기 있게 진행해 사업소 앞바다에 수산자원 증가 -몇 해 전, 자체 배양장을 건설. 올해 100만 마리의 가재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다시마 모배양 준비도 한창

北 소식

노동 신문	5월 27일	간석지건설을 국가중대사로 들어주고 강력히 추진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는 간석지 개간을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로 지목 -간석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내미는 것은 당의 일관된 방침. 간석지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후대들에게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물려주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 -전당, 전국, 전민이 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밀어주어야 함. 간석지건설 속도가 높아지고 경지면적이 확장되면 그만큼 알곡생산이 늘어나고 전반적 경제건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며 인민생활이 유족하고 문명해짐
노동 신문	5월 27일	간석지 방조제와 내부망공사성과 확대,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 기업소에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와 ‘월도간석지’, ‘홍건도간석’ 2단계 2구역 ‘조유지제방’공사를 힘차게 다그치고 있음
노동 신문	5월 27일	개건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신포수산사업소’에서 가공직장, 사탕직장, 랭동1 직장, 문화회관 등 여러 대상의 개건현대화를 끝내고 ‘만선원’과 종업원식당, 종합지령실 건축공사를 적극 추진 중. 이와 함께 50톤 능력의 ‘초급 동흐름선화’와 어선, 어구, 항해 및 통신설비 현대화 사업도 진행
노동 신문	5월 31일	수산자원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	-인민생활에서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 인민생활과 직결된 수산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수산물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 -수산업에서 기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수산사업소에는 어선과 어구를 현대화하고 기상예보, 해상지휘체계 등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함

北 소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어와 양식을 실속있게 벌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는 것. 물고기 생산주기를 줄이고 ‘먹이소비단위’를 낮추며 면역을 높여주는 등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함. -수산물생산을 늘리면서도 수산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 모든 수역에 수산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진행한 데 기초하여 수산물 생산규모를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함. 각 수산단위에서 담당수역에 양식시설물과 종자, 새끼고기를 넣어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개하는 것 역시 항구적으로 내밀어야 할 과업
--	--	--	---

<2023년 6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조선중앙통신	6월 5일	수산부문에서 수산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는데서 성과 이룩	-수산성에서 해삼과 섭조개 양식을 위한 적지를 선정하고 생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으며, 양식장을 과학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 -해상 ‘알쓸이철’이 임박한 데 맞게 종자해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진행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의 ‘조기종어장’과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어바다양어사업소’와 ‘어랑물고기방류어업사업소’ 신설
노동신문	6월 6일	드넓은 간석지에 규격포전을 펼쳐놓은 자랑찬 위훈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월도간석지’ 내부망공사에서 중요한 1년분 포전정리 과제를 5월 말까지 결속

北 소식

조선중앙통신	6월 8일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 50여만마리의 새끼태평양련어 방류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 올해 50여만 마리의 ‘새끼태평양련어’를 바다와 잇닿은 여러 강하천에 방류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는 ‘새끼태평양련어’와 함께 철갑상어, 칠색송어 등의 물고기자원을 늘이는 사업도 진행
내나라	6월 8일	새끼물고기생산에 힘을 넣는다	-‘평양시양어관리국’ 산하 ‘대동강양어 및 종어생산공급소’와 ‘중구그물우리양어사업소’ 등에서는 물고기들이 ‘알낱이’를 위해 모여드는 수역에 인공적 ‘알받이기질’을 놓아주는 동시에 해당 수역에 대한 감시,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구축
조선중앙통신	6월 10일	각지 수산단위들에서 개건현대화사업 본격화	-‘신포수산사업소’는 개건현대화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추진 -‘통천수산사업소’는 문화회관, ‘종합후생실’ 및 정양소, 온실 등 10여 공사 진행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의 ‘조기종어장’과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2단계 공사 진행
노동신문	6월 13일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드세찬 진군기세	-기사 중 수산부문 내용 발췌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 넘치게 하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과감한 어로전을 전개 -겨울철 불리한 날씨에도 ‘문덕수산사업소’는 필요 부속품을 자체 해결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도입 ‘배수리계획’을 완수하고 어구 및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았으며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어선을 건조 -김책, 청진, 련진 수산사업소에서 해상지휘체계를 세운데 맞게 해양조건과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제때 포착하고 어로수단과 장비를 집중하여 물고기잡이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

北 소식

노동 신문	6월 20일	동해해양연구소, 서해해양연구소 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동해해양연구소’와 ‘서해해양연구소’ 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6월 19일 각각 진행 -해양연구소에서는 동해와 서해의 해양환경 관측과 해양자원, 재해예측과 연구, 통보사업을 줄기차게 벌여왔음. 수많은 기상해양관측자료를 구축하고 해상예보와 태풍, 폭우, 센바람, 해일을 비롯한 재해성 자연현상을 예보하였으며 해안방조제, 방파제 건설 등에서 제기되는 해양학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 실질적인 결실을 거둠 -최근에는 해양예보를 과학화하고 관측의 현대화와 자료통신의 정보화, 예보공정의 실시간화를 실현하여 해상기상자료 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
조선중 양통신	6월 21일	남포수산 사업소에서 수산물생산토대 강화에 힘을 집중	-‘남포수산사업소’, ‘배수리직장’에서는 기관과 어구, 선체에 대한 수리 및 보수를 마무리하고 10여 척의 선박을 출항 -사업소 자체의 기술역량으로 능률 높은 어구를 갖춘 80HP 만능어선을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40만 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
노동 신문	6월 24일	바다양어, 양식발전에 큰 힘을 넣자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다양어와 양식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바다양어, 양식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관건적 고리이며 수산과학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 과제 -‘바다가양식면적’을 늘이고 양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며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집중해야 함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양식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연구사업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함 -‘그물우리양어’와 ‘혼합양식’ 면적을 늘리며 수산물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일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야 함

北 소식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3년 4월~6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4월 3일	North Korean and Chinese ships delivered sanctioned vehicles to Nampo: UN report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차량 수입은 유엔 제재 사항이나 2022년 5월, 북한과 중국 국적 선박 3척을 통해 10여 대의 트럭이 북한에 인도되었다고 보고 -2022년 5월, 북한 국적 ‘금산봉’호, ‘금산봉3’호와 중국 국적 ‘Peng Lu 9’호가 최소 10대의 화물차를 수송한 사실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
4월 4일	Chinese shipyard firms linked to ‘several’ transfers of vessels to North Korea	-곧 발표될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이후 최소 5척의 선박을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 중국 조선소 두 곳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 -보고서는 유엔 제재에 따라 2017년 이후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은 금지되었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북한이 노후 선박 6척을 도입한 사실을 확인 -Taizhou Yuanshan Shipping Project Limited Company (台州市园山船务工程有限公司)를 거친 ‘An Hai 6’호와 ‘Anni’호가 북한으로 이전 -Rongcheng Yuantong Ship Repairing Co., Ltd.를 거친 ‘Tomi Haru’, ‘Toyo Haru’, ‘SF Bloom’호도 북한으로 이전 -두 회사 모두 북한과의 관련을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연관성을 의심
6월 5일	North Korea turns to smaller vessels to obscure possible ship-to-ship transfers	-NK Pro는 지난달 중국 선박과 북한 고속정 및 소형 화물선이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소규모 선박을 활용한 불법 환적 시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지난 5월 12일, 중국 국적 ‘Sulianhuo1188’호(IMO 412878888)에 북한의 ‘백성 8’호(IMO 8667414)와 쾌속정 ‘보통강1’가 접촉 -‘백성 8’호는 2,887톤 화물선으로 지난 수년간 소유자와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중에는 북한의 제재 회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피와 관련된 업체도 존재 -‘백성 8’호는 남포항을 거쳐 5월 13일 해주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 -5월 15일에는 중국에서 남포를 향하던 북한 국적 화물선과 ‘Sulianhuo1188’호, ‘보통강1’호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
6월 6일	Singaporean gets 6-month sentence for covering up oil transfers to North Korea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해 대북 석유 밀반입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 모 씨와 다른 두 명의 싱가포르 국적자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MT Sea Tanker II’의 일지를 위조해 대북 석유 밀반입을 은폐. 2018년 10월 해당 선박은 북한 국적 ‘안산1’호로 석유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 -고 씨의 다른 공범들은 2023년 2월 각 징역 6개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음
6월 19일	Chinese crane vessel engages in likely illicit transfer with North Korean ship	-NK Pro가 Fleetmon과 중국 해양안전국(MS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북중 간 불법환적 의심 정황 발견 -북한 남포항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12,000톤급 화물선 ‘장수산’호, 중국 국적 ‘Jiang Shen Fu 6988’호와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나란히 정박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를 포착 -위성 이미지는 북한 ‘장수산’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선박이 나란히 정박하고 있으며, 두 선박 사이에 ‘Jiang Shen Fu 6988’호가 정박 중인 상황을 보여줌 -과거 UN의 전문가 패널은 ‘Jiang Shen Fu 6988’호를 북중 간 선박환적에 사용된 부유식 크레인으로 확인한 바 있음. 해당 선박의 길이는 43m로 확인



수산물 품목별 가격(2023년 4~6월)

(단위: 1kg, 북한 원화)

날짜 (2023년도)	낙지(오징어)				고등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4. 3	17,100	18,300	16,500	16,300	25,000	27,000	22,000	22,100
4. 16	16,900	17,000	16,200	16,100	24,700	25,900	22,000	22,000
4. 30	17,200	17,400	16,800	16,500	23,300	24,500	21,900	21,600
5. 14	17,400	17,600	16,500	16,500	22,400	23,200	21,000	21,100
5. 28	17,100	17,300	16,000	16,100	22,000	22,700	21,000	21,100
6. 11	17,100	17,000	15200	15,100	21,200	21,500	20,300	20,100
6. 25	15,600	16,000	14,700	14,800	20,200	21,000	20,000	20,000

날짜 (2023년도)	콩치				전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4. 3	17,000	16,500	17,100	17,200	15,000	14,300	15,400	15,300
4. 16	16,000	16,100	16,600	16,700	14,200	14,000	15,000	15,000
4. 30	15,300	15,100	15,000	15,000	14,000	13,700	14,400	14,600
5. 14	15,000	14,600	14,700	14,500	13,800	13,300	14,000	14,100
5. 28	14,200	14,000	14,100	14,000	13,400	13,000	13,500	13,700
6. 11	14,000	13,500	13,600	13,400	12,400	12,000	12,600	12,700
6. 25	13,700	13,500	13,300	13,400	12,500	12,000	12,500	1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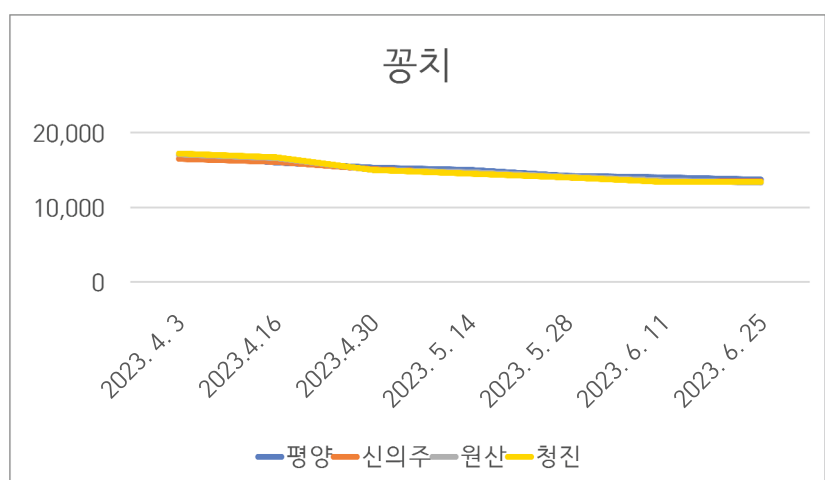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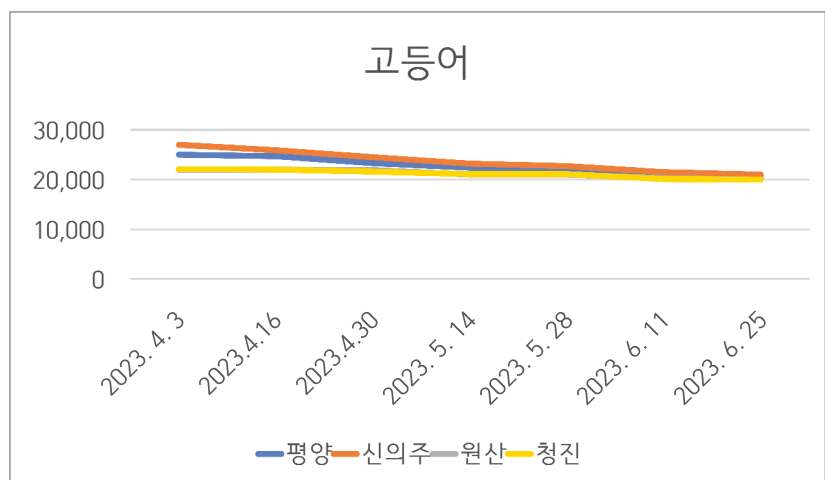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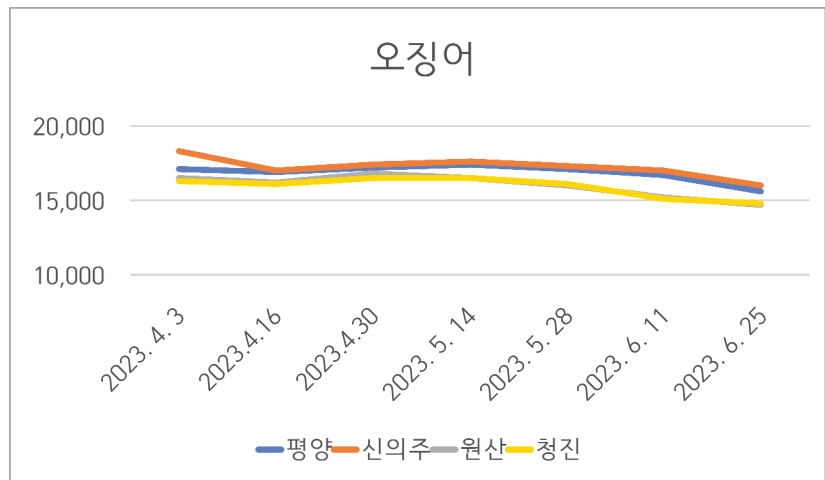
날짜 (2023년도)	송어				바지락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4. 3	12,200	12,000	12,500	12,600	12800	12,300	12,000	11,900
4. 16	12,000	11,500	12,300	12,400	12000	11,900	11,800	11,600
4. 30	11,600	11,100	12,000	12,100	12300	12,000	11,900	11,800
5. 14	11,000	10,100	12,000	12,100	12000	11,700	11,400	11,500
5. 28	11,100	10,300	12,100	12,200	11600	11,400	11,100	11,000
6. 11	11,000	10,100	11,800	11,900	11300	11,000	11,200	11,100
6. 25	11,200	10,600	11,900	11,900	11400	11,300	11,300	11,400

자료: 데일리NK 제공

북한 통계

수산물 품목별 가격추이(2023년 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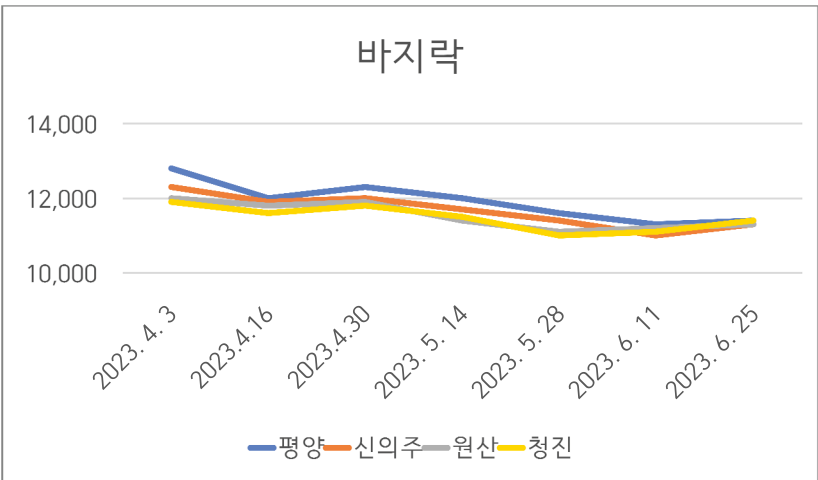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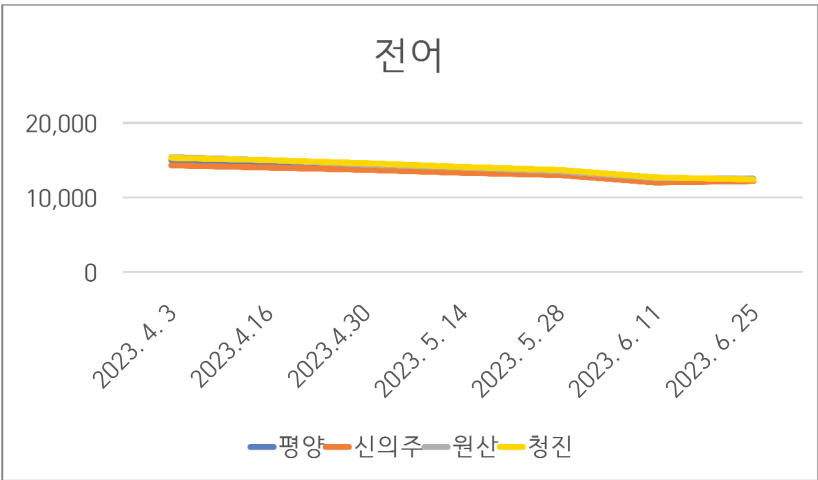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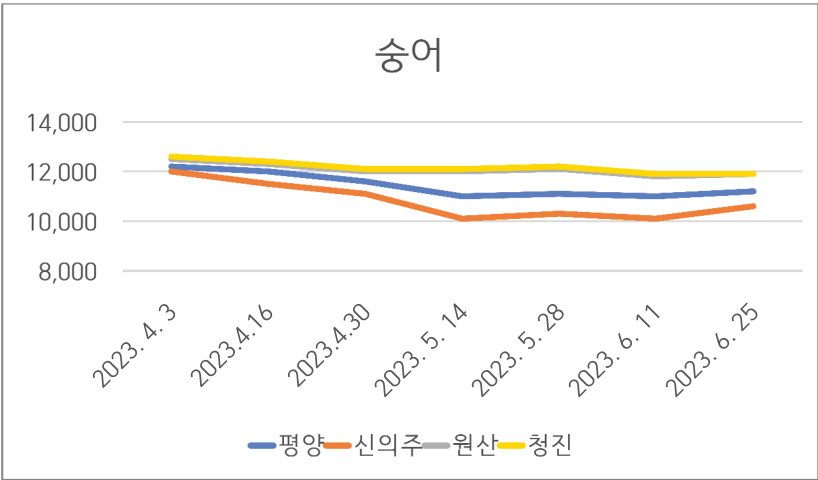
(단위: 1kg, 북한 원화)



북한 통계

수산물 품목별 가격추이(2023년 4~6월)

(단위: 1kg, 북한 원화)



북한 통계

2022년과 2023년 봄철 북한 수산물 가격 비교

채 수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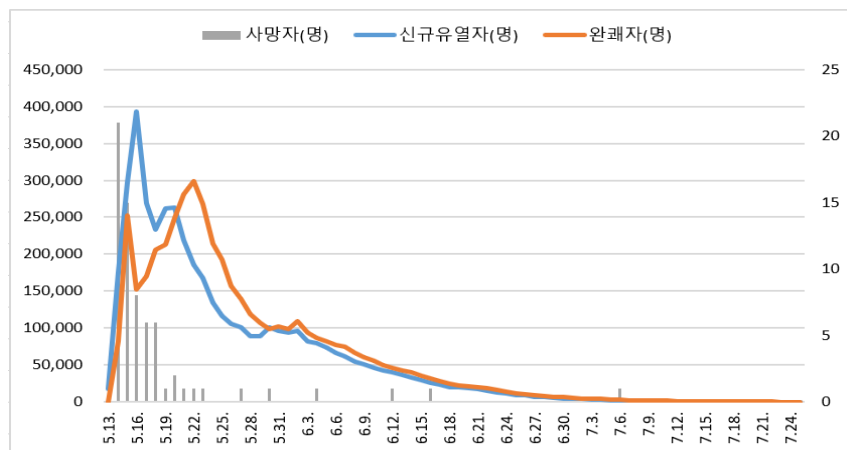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데일리NK와 협동으로 북한의 수산물 가격을 공시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올해의 북한 수산물 가격과 작년의 수산물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간 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의 주요 도시인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의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거래 가격을 조사하였다. 이번 코너에서는 2022년도 4월~6월의 북한의 수산물 가격을 2023년 4월~6월 수산물 가격과 비교하였다.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4~6월 북한 수산물 가격

2022년도 4~6월은 북한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기 전 시기이다.

〈그림 1〉 2022년도 북한 코로나19 현황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 코로나19 현황”

작년 봄은 북한 내부에서 2022년 5월 12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했던 시기로, 노동신문은 당시 발열자(유열자)와 사망자의 숫자에 대해 보도하였다. 특히 작년 5월, 중국의 선양 공항에서 의약품을 실은 북한

북한 통계

고려 항공기 3대가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였다. 이후 6월부터 발열자 및 사망자의 추세가 잦아들더니 7월에는 발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2022년 7월 이후 북한 언론의 보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내부적으로 종식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산지인 강원도 동해안 원산, 청진의 수산물인 서해 내륙인 평양, 신의주의 수산물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다. 동해안에서 수산물을 생산해 각 내륙 지역의 시장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해안 원산과 청진의 가격추세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청진보다 원산의 가격이 더 저렴한 편이다. 북한 원산과 나선 인근 앞바다에서 잡은 바지락, 키조개, 문어 등의 수산물은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 단둥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¹⁾ 또 2022년 8월, 북한 수산물은 건어물 형태로 중국의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²⁾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성행하던 2022년 봄, 국경봉쇄 및 이동 제한으로 인해 유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 내부에서 수산물 가격은 크게 요동쳤으나 팬데믹 종료 이후 북한 수산물은 유통 사정이 개선되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물류체계가 호전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어종별 가격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북한의 수산물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여 들쭉날쭉 요동친다. 특히 4~6월 사이 콩치, 바지락의 가격변화가 심하다. <표 1, 2>와 같이 5월 초 가격이 오르다가 5월 말에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 이후 6월 초에서 중순 무렵 가격이 다시 오른다. 이동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북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상품의 유통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격변동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물품운송을 담당하는 운수업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전해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³⁾

최근 기후변화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고등어, 오징어, 멸치와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 동중국해에서 서해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장이 서해에도 형성되고 있다.⁴⁾ 통상적으로 오징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제철로 봄에는 작은 새끼가 잡히다가 여름으로 갈수록 싸이즈가 큰 오징어가 잡힌다.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오징어는 평양, 신의주의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원산과 청진의 오징어 가격이 약간 낮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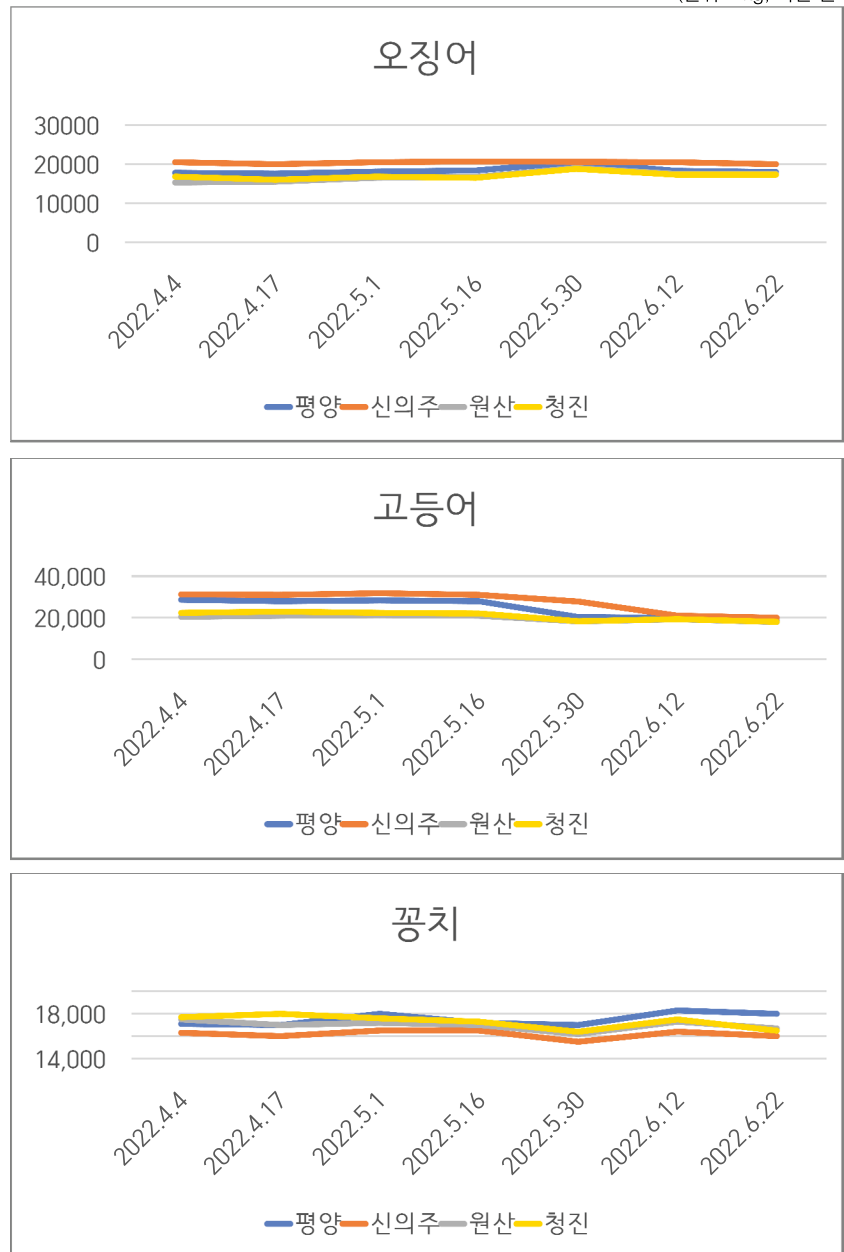
북한 통계

임에도 동해안과 서해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서해와 동해 모두 오징어를 포획할 수 있어 평양, 신의주와 원산, 청진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고등어, 꽁치는 동해안 연근해가 원산지이므로 원산과 청진의 가격보다 평양과 신의주와 같은 서해 쪽 시장가격이 높다. 고등어는 5~8월이, 꽁치는 6월~8월이 주어기이다.

<표 1> 2022년도 북한의 오징어, 고등어, 꽁치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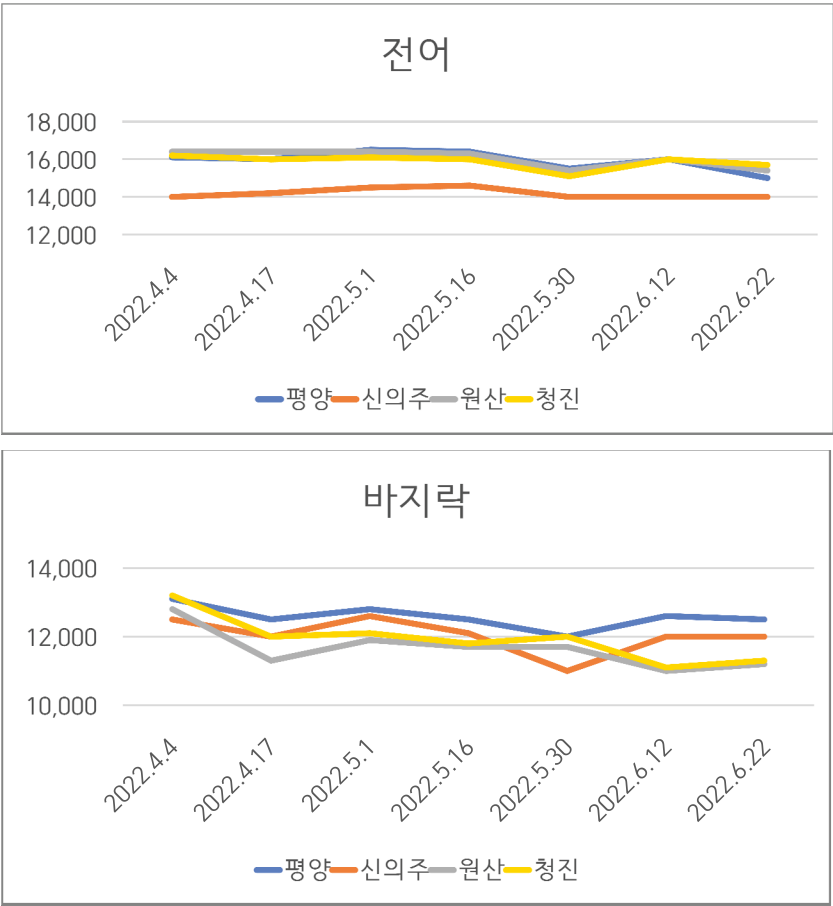
(단위: 1kg, 북한 원화)



난류성 어종인 전어는 여름부터 포획되기 시작해 가을철 대표 생선이다.⁵⁾ 멸치와 함께 가장 저렴한 생선인 전어는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므로 평양과 신의주의 시장가격이 원산, 청진보다 낮다. 특히 이례적으로 2022년 신의주 시장의 전어 시장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바스레기로 불리는 바지락은 서해 전 연안이 주 생산지로 황해도 웅진 앞바다가 최대 생산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따라서 평양, 신의주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바지락 시장 가격은 크게 들쭉날쭉해 <표 2>의 그래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표 2> 2022년도 북한의 전어, 바지락 시장가격 (단위: 1kg, 북한 원화)



2023년 4~6월, 안정된 북한의 수산물 가격

2023년 들어 북한의 수산물 시장가격은 안정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유통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48, 49페이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징어, 고등어, 송어, 전어, 콩치 모두 가격이 4월부터 6월까지 하향화 추세인 가운데 지역별 큰 차이 없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바지락의 가격변화가 크다. 4월에 높게 형성되었던 바지락 시장가격이 6월에는 크게 낮아진다.

송어는 2월, 4월, 9월이 성어기로 서해에서 주로 잡힌다.⁷⁾ 따라서 동해안 지역에 비해 평양과 신의주 등 서해안 지역의 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팔린다. 그리고 오징어, 고등어, 콩치는 주로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서해 쪽인 평양과 신의주의 가격이 더 높다. 그리고 평양보다 신의주 시장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동해안에서 수산물을 포획하여 서해 내륙으로 유통해야 하는데 평양보다 신의주가 거리상으로 더 멀고, 도로·기차 등의 교통체계가 평양이 잘 구축되어 있다. 유리한 교통체계를 지닌 평양의 수산물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신의주는 서해안을 끼고 있으나 수산물 생산량이 적다는 점이다.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서해 북부로 갈수록 생산량이 적어진다. 따라서 신의주 시장의 수산물 가격이 더 비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최북단 철산반도 해역은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이지만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어선들의 불법 월경 조업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추후 북한의 지역별 수산물 시장가격의 데이터가 다년간 축적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1) 조선일보, 더 커진 '제재 구멍'... 중단동 공장 "북한산 수산물 손질해 한국에 납품",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4/24/2DR44D6UDZAHBZ545T5AOYQXM/>
- 2) 매일경제TV, 북한 수산물, 온라인몰서 버젓이 판매 중,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717123
- 3) 데일리NK, 화물트럭 운송업자가 말하는 최근의 北 내부 상황은?, <https://www.dailynk.com/20230703-1/>
- 4) 현대해양, 펄펄 끓는 지구, 한반도 어장지도가 바뀐다 - 2021 어종 변화 보고서,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
- 5) 한겨레, 가을 전어? 여름이 제철입니다... '껌값'에 맞볼 기회,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55012.html>
- 6)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 자연산 바지락, 이젠 옛날 얘기,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ea-food-08072015095233.html
- 7) 강종희 외(2006),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180.